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2013. 8 | Vol. 231호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150*220

표지 _ 국2절 미색모조 220

내지 _ 국전 미색모조 100

중철 36p



대한불교
조 계 종 법 왕 사



한결 같은 마음

해오름요양원

백중(우란분절) 영가천도 49재

법왕사에서는 계사년 백중(우란분절) 맞이 영가천도 49재를 7월 4일 입재하여 음력 7월 보름인 8월 21일 회향합니다.

우란분절은 부처님의 제자인 목련존자가 지옥도에 떨어진 어머니를 천도하기 위해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리고 부처님과 스님들을 공양하여 어머니를 구했다는 유래가 있는 불교의 중요한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가천도에 참여하는 불자들은 기도 기간 중 선망부모와 조상 및 수자령가들을 천도,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사경책을 한 권씩 정성들여 베껴 회향일에 불사르는 의식을 올리게 됩니다.

불자들에게서는 모두 수회동참하시어 선망부모의 왕생극락을 기원하시고 크나큰功德 쌓으시기 바랍니다.

기 도 삼재 7월 24일(음. 6월 17일)
사재 7월 31일(음. 6월 24일)
오재 8월 7일(음. 7월 1일)
육재 8월 14일(음. 7월 8일)
막재 8월 21일(음. 7월 15일)
재일은 매주 수요일

준비물 속옷 - 런닝, 팬티, 양말, 기타
겂옷, 신발(짚신) - 사중에 준비
세면도구 - 비누, 치약, 칫솔, 수건, 대야
공양미 - 3되3홉 또는 15,000원
수자령 - 분유, 배냇 저고리, 과자, 유아복, 장난감 등

문의 법왕사 766-3747, 9088

- ※ 동참금은 영가 1위당 1만원입니다.
- ※ 매 재마다 재물(과일, 떡)을 공양하실 분은 중무소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 영혼결혼식 접수받습니다.



C.o.n.t.e.n.t.s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Vol. 231호



- 04 깨침의 향기
깨달음은 현실 속에 있다 · 원공당 정무 대종사
- 08 비술산방
불국토 건설을 위하여(2) · 실상 주지스님
- 10 법왕논단 | 종교와 철학
바른 말과 바른 행실은 바른 마음에서 나온다 · 본원스님
- 14 불교상징의 세계 Ⅲ
한국의 정서가 스며들어 있는 전각 · 조명래
- 18 명찰순례
원시림에 둘러싸인 영험도량 치악산 구룡사
- 22 법회이야기 | 우란분절
부처님과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는 날, 우란분절
- 24 선시감상 | 전강선사
전강선사 오도송
- 26 법왕사소식
- 29 법왕사게시판
- 31 해오름게시판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 등록일 2012년 9월 14일 | 등록번호 수성 라 00017 | 발행처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www.bubwangsa.or.kr | 발행일 불기 2557(서기 2013)년 08월 01일 발행 | 통권 231호 | 종무소 T. (053)766-3747 · 9088 F. (053)767-6095 | 발행 겸 편집인 실상스님(권오범) | 인쇄인 강영도 | 편집위원장 원인스님 | 편집위원 도도, 영일, 성해, 정명, 상철, 자윤, 강선옥, 고재일 | 기획·제작·디자인 다산미디어 (053)424-3322

법왕지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매달 불제자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더욱 알차고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은 현실 속에 있다

원공당 정무 대종사



베풀면 분명
좋은 일이 생깁니다.
늙으면 어떻게 될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실이 즐거워야 말년이
즐겁고 말년이 즐거워야
죽어도 즐겁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결코 부모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또 역설적으로 자녀들의 운명은 어머니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감정과 생각을 고스란히 물려받기 때문에 어머니의 잘못된 행동 하나 하나는 모두 자식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 만큼 부모에게도 책임감과 함께 부모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운명은 어머니에게 달려 있습니다. 즉 어머니가 건강해야 자식들이 건강하고 자식들이 건강하면 자연 이 나라도 건강할 것입니다. 좋은 과자 하나 만드는데도 자격증이 있어야 하듯이 자식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려면 당연히 부모들도 그에 상응하는 자격, 즉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첫 번째 임무는 부모은중경에 나오는 그 열 가지 은혜를 베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태교(胎敎) 공부입니다. 아이들이 이미 태어나면 못 고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좋은 스승이 십년 가르치는 것보다 어머니가 삼년 가르치는 것만 못하고 어머니의 삼년 교육은 열 달 태교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는 무조건 자연분만을 해야 하고 모유로 키워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은 사람의 것으로 키워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 더 덧붙이자면 세 자녀 이상을 낳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 명 이상 낳으면 조상과 국가를 위해서도 좋고 화목한 가정을 이룩하는데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제대로 된 부모는 자녀의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자식의 잘못된 행동은 결국 부모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내 아들은 잘못 없는데 저 놈이 친구를

잘못 만나 저렇게 되었다”며 남의 자식만 탓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인삼 농사는 6년이면 되지만 자식 농사는 30년 이상 걸립니다. 시집 장가 갈 때까지 한시라도 자식 농사에 게을리 하면 안 됩니다.

요즈음 시냇가로 ‘아들 딸 필요없다’며 40세가 넘으면 내 살길 내가 찾아야 된다고 노후 준비에 들어가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돈이 없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외로움입니다. 추억을 가진 들 늙어서 찾아오는 자식 하나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가정에 소홀이 하면서 열심히 일해 몇 억을 모으면 뭐합니까. 늙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일가친척들에게 욕을 얻어먹으면서 악착 같이 돈을 벌면 뭐합니까? 그 돈으로 사람의 따뜻한 정을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 노릇 제대로 하면서 돈 모으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돈 돈’하면서 악착같이 사는 것보다는 있으며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늘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인 것입니다.

지식의 사명은 무식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럼 돈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돈을 벌 때는 중생심(衆生心)으로 벌고 쓸 때는 보살심(菩薩心)으로 써야 합니다.

인도 사람은 20세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40세까지는 좋은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40세가 넘으면 출가해 도를 닦다가 길에서 죽는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하면서 좋은 일 하다가 돈 한 푼 없이 죽는다고 해서 누구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람된 삶을 살다가 갔다며 칭찬해 줄 것입니다.

죽어서 천당 가고 극락 가자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삶을 구차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냥 열심히 살면 저 멀리서 부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의심(疑心)을 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베풀면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늙으면 어떻게 될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심히 살면 극락 간다는 확신으로 살면 됩니다. 현실



우리의 삶은 늘 고통과 함께 합니다.

때문에 피하려고 해도 쉽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과 이해로써 즐겁게 살도록 노력합시다

이 즐거워야 말년이 즐겁고 말년이 즐거워야 죽어도 즐겁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부모님 공양하고 부처님께 보시하고 여행도 열심히 다녀야 합니다. 퇴임을 한 뒤 여행도 하고 무엇을 해 보겠다고 꿈꾸면 뭐합니까? 늙으면 여행 다닐 힘도 없는데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80%가 후회하면서 산다고 하는데, 흘러간 물은 다시 주워담을 수 없듯이 과거의 일을 후회해 본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현실을 즐겁게 현실에 충실하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1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삼재(三災)를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삼재가 무엇입니까? 화재(火災), 수재(水災), 풍재(風災)를 말합니다. 이들은 세상을 파멸할 수 있는 재난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큰 고통은 바로 인재(人災), 차재(車災), 그리고 병재(病災) 때문입니다. 물이고 바람이고 불은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고통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간의 갈등과 교통사고, 그리고 병은 늘 우리가 겪고 있는 큰 문제들입니다.

이들 삼재 중에서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인간재앙입니다. 그럼 인간재앙(人間災殃)은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먼저 남을 비방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어야 합니다. 경청(傾聽)만 잘 해도 인간 사이에서 겪는 갈등의 태반은 사라질 것입니다. 요즈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른 사람 말 안 듣는 게 큰 문제입니다.

원컨대 사바세계에 사시는 불자 여러분, 어떤 잎이 생기고 어떤 꽃이 피고 어떤 열매가 맺을 것인가 하는 것은 다 여러분의 몫임을 명심합시다.

불국토 건설을 위하여(2)

실상스님 / 법왕사 주지



사무량심과 육바라밀이야말로
불자라면 누구나 어묵동정,
행주좌와의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수지하고 닦아야 할
덕목이며 불법의 힘으로
이 사바세계를 불국토로
바꾸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스스로가 보살 즉, 언젠가는 부처님이 될 존재임을 자각하고 일상생활이 그대로 수행임을 깊이 명심하여 실천 수행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불자들이 수행과정에서 실천해야 할 덕목을 육바라밀(六波羅蜜)이라고 말합니다.

육바라밀은 여섯 가지 수행 방편을 뜻하는 것으로서, 보시(布施), 지계(持戒), 인욕(忍

辱), 정진(精進), 선정(禪定), 반야(般若)가 그것입니다. 이 육바라밀은 근본불교의 팔정도에 해당하는 대승불교의 구체적인 수행방법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정리해 보면 깨달음의 핵심은 연기와 중도이며 중도의 실천방안이 팔정도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대승의 교리



에서는 중도와 연기를 공(空)사상으로 재해석하게 되므로 공사상에 걸 맞는 실천도로서 육바라밀이 등장하게 됩니다.

경전에는 “공의 법에 깊이 들어가 육바라밀을 행하며 대자대비를 키우는 사람을 보살이라 한다”고 하여 보살이 행할 자비행이 육바라밀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타행의 실천을 중시하는 대승사상의 핵심 덕목이라 하겠습니다.

보살은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上求菩提],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여 구제하겠다는 ‘하화중생(下化衆生)’의 대원(大願)을 세우고 실천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전생의 석가모니 보살과 같은 특징의 보살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성불하겠다는 서원을 일으켜서 보살의 길로 나아가면 그 사람이 바로 보살인 것입니다. 이러한 보살이 마땅히 닦아야 할 덕목이 바로 육바라밀입니다.

보시(布施) 바라밀이란 남을 위해 아낌없이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재시(財施), 법시(法施), 무외시(無畏施)라 하여 세 가지 보시를 권장하고 있는데, 재물이나 가르침을 베푸는 것과 아울러 남을 두려움에서 구해주는 덕행을 뜻하는 것입니다. 보시아말로 대승불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최고 덕목으로 이타적 자비행 실천의 핵심입니다.

지계(持戒) 바라밀은 계율을 준수하는 것으로, 특히 계율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효율적으로 지혜

롭게 운용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또한 단순히 불교의 계율만을 의미하지 않고, 법률이나 도덕, 기타 인간으로서 양심에 따라 지켜야 할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인욕(忍辱) 바라밀은 욕된 것을 참고 견디는 자세를 말합니다.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 때로는 참기 힘든 것도 인내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진(精進) 바라밀은 끊임없는 노력을 뜻합니다. 스스로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굳은 신념을 지니고 쉽 없이 한 길을 가는 용감한 자세를 일컫는 말입니다.

선정(禪定) 바라밀은 정신을 한곳에 모으는 수행을 통해 어지럽고 산란한 마음을 안정시킴으로서 언제나 동요됨이 없는 삶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반야(般若) 바라밀은 지혜가 완성된 생활을 뜻합니다. 사물의 참다운 이치 즉, 연기의 이 법을 올바로 터득해 걸림이 없고 집착이 없는 슬기로운 생활 자세를 말합니다.

사무량심과 육바라밀이야말로 불자라면 누구나 어묵동정, 행주좌와의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수지하고 닦아야 할 덕목이며 불법의 힘으로 이 사바세계를 불국토로 바꾸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바른 말과 바른 행실은 바른 마음에서 나온다

본원스님 / 토굴 정진중



마음이 거칠면 말 또한 거칠다.

마음이 깨끗하고 바르면 행실이 바르고

행실이 바르면 말이 바르니,

바른 말과 행실은 바른 마음에서 나온다. <능가경>



조선 왕조의 최대 실책은 ‘인’과 ‘예’를 가르치며 ‘심신수양’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한 학문 수준을 넘지 않는 유학을, 권력을 쥔 지배계급의 용의주도한 정치적 계산 하에 ‘유교’라 이름하며 스스로 종교가 아님을 알면서도 짐짓 종교인양 떠받들도록 백성들을 우민화시키며 속였다는 점이다.

‘역성혁명(易姓革命)’이라며, 국가를 전복한 쿠데타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고려의 국교인 불교를 흠잡아 깎아 내리지 않고서는 사회안정이며 민심을 얻을 수 없었다. 그래

서 당시 안일에 젖어 있던 불교의 허물을 크게 확대 문제 삼아 비판했다. 또 남송(南宋)의 주자(朱子) 이전까지 지리멸렬하며 중국에서도 사라지다시피한 공·맹 사상을, 어느 날 갑자기 ‘유교’라며 이를 ‘국교’로 표방하면서 치국의 이념으로 삼아 관학(官學)이자, 서당교육의 배움으로 정했다.

이처럼 불교를 억압하는 동시에 백성들에게 관혼상제를 통한 유가의 의식을 행하도록 만들며 민족정서인 불교를 무시했다. 이는 범죄행위나 다를 바 없는 가혹한 짓으로 불

교를 탄압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 조선왕조의 유가(儒家)집단이다.

종교의 진리를 말하기 전에, 분명한 것은 개인이건 집단이건 국가이건 범죄적 과오를 저질렀으면 어떤 행태로든 그만한 대가(代價)를 치러야만 하는 것이 인간사 순리이자 우주적 질서가 갖는 피할 수 없는 법칙의 준엄함이다. 하지만 참회한 적이라곤 없는 유가집단이 오늘날까지도 뉘우치기는커녕 ‘잘 못했음’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말 한 마디 없는 무책임함은 그들의 삶의 언저리에서 느낄 수 있다.

● ● 험난한 질곡은 현대까지 이어져

찾는 이 없이 텅 빈 썰렁한 서원만 남은 채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못하는 유학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진 지 오래이다. 또 일상에서 행해온 관혼상제의 관습은 너무 번거롭고 소모적이라 이미 60년대 ‘가정의례준칙’에 따라 간소해졌으며 유학이 그토록 강조하는 여필중부니 남존여비니 삼종지도니 하며 여자를 차별했다가는 오히려 여자에게 매맞고 쫓겨나기 십상인 시대로 바뀌었다.

유학을 이념으로 다스린 왕조의 비참한 최후로 이어지는 험난한 질곡의 파장은 일제의 강점기-말뿐인 해방-미·소의 한반도 분할 점령-신탁·반탁을 원하며 극렬히 대립하던 좌익과 우익간의 노선투쟁-일제가 남긴 문헌을 참고로 한 미군정 실시-극심한 사회 혼

난 속에 좌경(左傾)·우경(右傾)화 사상이념이 빚은 충돌로 동족간에 피로 물든 분쟁과 소요사태-여·순사태, 제주사태, 거창·산청 양민학살로 수많은 유족들은 피눈물을 뿌렸다. 더구나 해방의 기쁨도 잠시, 국토는 38도선이 그어지면서 끊어졌고, 이어서 비극의 6·25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서는 반공만이 살길이라며 무법천지를 만든 자유당의 부패 정권은 결국 유혈사태로 끝이 났다. 쿠데타로 뒤를 이은 군사정권 역시 반공을 국시(國是)로 삼아 부당한 정권 유지에 이용하면서 이산의 아픔을 한으로 달래는 민족의 염원인 통일 문제는 진정성 없이 내버려 둔 채, 경제발전에만 급급했다.

온갖 비리로 얼룩진 기나긴 30년 세월 동안 집권한 군부 독재정권이 몰락하자, 이번에는 기대했던 민주정부·참여정부가 부끄럽게도 군정에 이어 계속되는 국정 최고 책임자들의 친·인척 비리에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서 같은 국민임을 낮 뜨거워 하며 공식 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지수가 상위권인 국가 신인도에 할 말을 잃을 정도라고 한다.

지난 90년대 중반, 지극한 불교도이자 세계적인 청백리로 널리 알려진 태국의 잠롱시장이 우리나라의 초청으로 한국에 와서 하던 말이 기억난다.

“한국에 대해 생각하는 바를 듣고 싶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고도성장을 이룬 반면,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부패가 뿌리 깊은

것'으로 들어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한 마디 덧붙이기를, "어느 나라이고 부정부패는 인간의 거짓된 마음에서 저지르는 탐욕 때문"이라고 지적한 잠룡의 말은, 곧 '정도(正道)'에 입각한 바른 견해와 생각이 가지는 바를 언행(言行)에서 벗어날 때, 탐욕에 눈이 멀어 전체의 이익보다는 사리사욕이나 채우려는 사심(私心)에서 그릇된 행위를 하게 된다는 평범하지만, 한 번쯤 새겨볼만한 것이다.

조선 왕조의 망국을 재촉한 파벌적 파당을 가리킬 때 '사색파당'이라고 한다. 하지만 우암 송시열이 노론(老論)파의 영수(領袖)로서, 이에 맞서는 소론(少論)파와 서로 혈투고 음모와 모략으로 죽고 죽이는 사화(士禍)를 빚었으니, 결국 사색(四色)이 아니라 육색(六色 : 동인 · 서인, 남인 · 북인, 노론 · 소론)으로 복잡하게 얽힌 당파싸움이었다.



국가쇠락은 내부분란이 원인

힘을 하나로 뭉쳐야만 될 작은 나라에서 명색이 학문을 한다는 양반, 선비, 사대부들이 제몫으로 돌아올 이익만을 위해 '육색(六色)'으로 패를 가르면서 진저리나게 3백년 세월을 두고, 이해를 다투며 피 흘리면서 국력을 소진시켰으니, 이쯤 되면 설령 힘 있는, 큰 나라였더라도 내분(內紛)에 휘말려 온전치 못했으리라.

역사학자 토인비는 그의 저서 『국가의 흥망(國家의 興亡)』에서 인류는 끝없는 고난 극

복의 역사였음을 상기시키면서 "한 나라가 쇠락할 때는, 외침(外侵)을 받기에 앞서, 내부에서 먼저 침략의 빌미와 함께 국력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생기면서 그것을 이겨 내지 못한 채 서서히 시들어 갔다"고 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중 40%가 로마시대 유적이다. 그 중에서도 수만 명을 수용하는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은 현대 건축기술로도 건설하기 어렵다 한다. 근대 국가들이 제정한 여러 가지 법 조항은 이른바 '로마법전'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 만큼 발달된 문화와 번영을 누리며 세계 최강수(BC 753~AD 476)인 1,229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로마 왕조는 귀족들의 방탕과 문란한 성도덕이 부추긴 사치 · 향락으로 스스로 쇠퇴의 길을 향했다.

고대 문명을 꽃 피웠던 이집트가 권력의 공백을 틈탄 내분에 휩쓸리면서 야기된 사회혼란이 부른 신분 · 계급 질서가 무너지면



서 급격한 노동력 감소와 물자 부족에 따른 과중한 조세 부담이 가져온 민심 이탈과 여기에 나일강의 범람 등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끝내 몰락으로 치달았으며 5~7세기에 광활한 대륙을 말 달리며 호령하던 동북아의 패권국으로서 수나라 대군 120만을 물리칠 만큼 강성했던 고구려 역시 연개소문이 죽은 뒤, 서로 권력을 차지하고자 그 아들들이 일으킨 내분을 슬그머니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어이없이 멸망했고, 그 늙은 고구려의 기상마저도 역사의 저 편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잘못된 정치풍토는 당쟁에서 유래

지나간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장래가 암울하다고 하였다.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이기적인 유전자의 개체이다. 하지만 사람만은 올바른 교육과 진리를 추구하는 수양으로서 이기(利己)를 떨치고 남을 위하는 이타행(利他行)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람은 지난날 잘못된 과오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깊이 살피고 헤아리며, '심신을 가다듬는 정도(正道)'의 가르침에 따라 부단히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인격을 성숙시키는 자기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정치 행태(行態)를 보면 "우리는 다른 것에 비해 정치발전이 안 되는 게 문제"라고들 하는데 따지고 보면, 제자리 걸음하는 수준 이하 함량 미달의 행태를 위정자들은 부끄러운 줄 모른 채 세월이 흘

러도 여전히 답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한다.

당리당락만을 위한 정책에서부터 대권을 위해서라면 교묘한 말 바꾸기와 거짓말로 정계 사퇴와 복귀를 수차례나 반복하는 작태를 낮빛 하나 변하지 않고 태연히 행하는가 하면, 이해관계를 좇아 신의(信義)를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변절과, 국익보다는 당과 자신의 이익이 우선이기에, 반대를 위한 반대도 서슴지 않는 패거리식 야합 집단격으로 체질화되다시피 한 정치 풍토의 파벌과 정쟁(政爭)의 기원은, 선조 8년(1575)에 쏘든 당쟁과 봉당(朋黨)이 독버섯처럼 뿌리내리며 질기게도 수백 년을 두고 이어지면서 기어이 나라를 송두리째 왜인들에게 넘겨주는 국치의 수난을 당하고서도 그 위세가 수그러들지 않는 것을 보면, 시절을 타며 명분적으로 힘 있는 지식 · 지배계급에 의해 발단되어 저질러지고 길들여진 그릇된 폐단 · 폐습이 두고두고 국가와 국민에게 얼마나 커다란 해악을 끼치게 하는가를 뼈저리도록 느끼게 하는 예 가운데 하나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일부에선 그 '망국적 파당싸움'을 다분히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봉당은 봉건주의 군주정치에서 연로를 통해 자칫 일방으로 흐를 '권력의 남용과 전횡 · 독주를 막기 위해 비판과 견제역을 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느냐"고 한다.



▲ 개암사 산신각

조명래 / 불국사 문화유산 해설사

산신각(山神閣)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산이 많은 자연환경으로 인해 산신신앙이 널리 신봉되었다. 후한서(後漢書) 동이전(東夷傳)에 ‘그 풍속은 산천을 존중하고 호랑이에게 제사 드리며 신으로 섬긴다’라는 기록과 ‘단군이 아사달의 산신으로 좌정했다’는 단군신화를 통해 고조선 당시에 산신신앙이 널리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삼국 모두가 산신신앙을 신봉했는데 그중

에서도 특히 신라에서 산신신앙이 가장 성행하였다.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대사(大祀)를 경주와 경주 인근에 위치한 나림(奈林·경주명활산)·골화(骨火·영천 금강산)·혈례(穴禮·안강의 혈례산)의 삼산(三山)에서 지냈고, 삼국을 통일한 뒤에는 중사(中祀)를 동쪽은 토함산(吐含山), 남쪽은 지리산(地理山), 서쪽은 계룡산(鷄龍山), 북쪽은 태백산(太伯山), 중앙은 공산(公山·팔공산)의 오악(五岳)에서 지냈으며, 소사(小祀)를 상악(霜岳)·설악(雪岳)·화악(花岳) 등을 비롯한 전국의 명산(名山)에서 지냈다.

이러한 전통은 고려, 조선으로 이어져 명산에서 국가 차원의 제의를 정기적으로 지냈다. 고려 왕조는 천재지변 등이 있을 때마다 오악명산에 제사를 지냈으며, 특히 고려 후기에는 봄과 가을에 경도의 송악산, 적성의 감악산, 진천의 태령산, 남원의 지리산, 광주의 무등산, 정주의 비백산 등지에서 산천제를 지냈다.

조선시대에는 산신신앙이 보다 다양화되어 나라는 물론 마을과 개인의 신앙으로 널리 확산되어 마을마다 산신당, 산왕당, 서낭당, 성황당 등을 만들어 산신을 숭배하게 되었다. 이는 산신(山神)이 농경신적 성격을 더하여 마을의 풍요와 개인의 기복·기자·치병 등을 비는 개인 신앙적 성격이 강화되었다.

산신(山神)은 불교와 관련성이 없다. 그러나 사찰에 ‘산신각(山神閣)’이 자리하게 된 것은 민중들에게 널리 확산되어 있는 산신

(山神)과 같은 토착신앙의 수용과정의 하나이다. 신중청(神衆淸)에 보면, ‘내호조왕 외 호산신’이란 구절이 있는데 부역을 관장하는 조왕이나 산신은 비불교적이나 민중들의 생활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토속신앙을 통해 민중들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하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이다.

칠성각(七星閣)

칠성(七星)은 북두칠성의 존칭인 칠원성군(七元星君)의 줄임말이다. 북극성(北極星)과 북두칠성(北斗七星)의 신(神)이 인간의 수명과 길흉화복을 주재한다는 도교적 믿음에서 출발한 것이 칠성신앙이다.

도교에서는 북두칠성을 칠원성군(七元星君)으로 모시고 있는 데 비해, 불교에서는 칠여래(七如來)를 모시는 것이 다르다. 조선시대 병자호란 후 청의 영향으로 도교를 숭상하면서 칠성신앙이 민간으로 확산되었다.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칠성각(七星閣)을 세우고 치성광여래·일광보살·월광보살의 삼존과 칠여래와 함께 칠원성군을 불화로 모신다. 칠원성군은 대개 관모와 관복을 착용한 모습이 많고 도사의 모습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독성각(獨聖閣)

독성각(獨聖閣)은 혼자서 스승 없이 깨친 독각(獨覺)의 성자를 모신 전각으로 나만존자(那畔尊者)를 봉안하는 것을 통례로 하고 있다. 독성각에는 나만존자상을 모시고 후불탱화에는 독성탱화를 모시는데, 사찰에 따라서



① 감사 삼성각 ② 기림사 삼성각

는 탕화만을 봉안하는 경우도 있다.

삼성각(三聖閣)

삼성각(三聖閣)은 산신(山神)과 칠성(七星), 그리고 독성(獨聖)을 함께 봉안하고 있는 전각이다.

원래 삼성각(三聖閣)에는 고려 말의 삼대 성승(三大聖僧)인 지공(指空)·나옹(懶翁)·무학(無學)의 세분을 모시는 지금의 조사당(祖師堂)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급성장한 서산대사 제자들이 법맥을 타고 보우선사로 단일화한 이후부터 삼성각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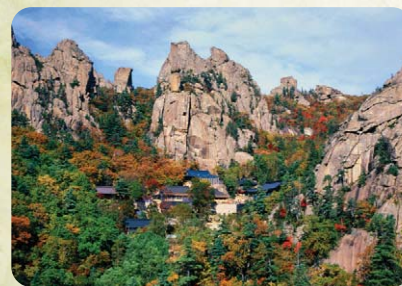
이후에 삼성각(三聖閣)은 산신(山神)과 칠

성(七星), 그리고 독성(獨聖)을 봉안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삼성각에는 중앙에 치성광여래를 모시고 좌우에 독성과 산신을 모시기도 하고, 때로는 독성과 용왕을 모시기도 한다.

삼성 신앙은 불교가 한국 사회에 토착화하면서 고유의 토속신앙이 불교와 합쳐져 생긴 신앙 형태이다. 전각은 보통 사찰 뒤쪽에 자리하며, 각 신앙의 존상과 탕화를 모신다.

삼성을 따로 모실 경우에는 산신각·독성각·칠성각 등의 전각 명칭을 붙인다. 삼성을 함께 모실 때는 정면 3칸, 측면 1칸 건물을 짓고 따로 모실 때는 정면 1칸, 측면 1칸의 건물을 짓는다.

설악산 봉정암 순례법회



법왕사에서는 오는 8월 2일(금)부터 4일(일)까지 2박3일간 설악산 봉정암을 참배합니다.

봉정암은 우리나라 5대 적멸보궁 가운데 하나로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도량으로 유명한데 불심 깊은 불자들은 생전에 꼭 한번 참배하고 싶어 하는 도량입니다.

- 일 시 | 8월 2일(금) ~ 4일(일)
- 코 스 | 백담사 - 오세암 - 봉정암(1박) - 수렴동 계곡 - 백담사
- 회 비 | 12만원
- 출 발 | 8월 2일(금) 밤 11시 30분 법왕사 주차장

원시림에 둘러싸인 영험도량 치악산 구룡사

‘천년이 지난 신령스러운 거북이 연꽃을 토하고 있고, 영험한 아홉바다의 용이 구름을 풀어 놓는 형상을 한 천하의 승지이다.’
수려한 계곡과 온 산을 뒤덮고 있는 거대한 나무숲이 일품인 치악산에 있는 구룡사를 두고 하는 말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인 월정사의 말사인 구룡사는 668년(문무왕 8) 의상대사가 창건하였다고 전해진다.

창건에는 재미있는 설화가 하나 있다. 지금의 구룡사 자리는 원래 깊은 연못이었고 그곳에는 아홉 마리의 용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의상대사가 연못이 있는 이 자리가 길지임을 알아보고 이곳에 절을 지으려 하자, 용들은 이를 막기 위해 의상대사와 내기를 해진 쪽이 이긴 쪽의 뜻에 따르기로 했다.

먼저 용들은 뇌성벽력과 함께 큰 비를 내려 산을 물로 채웠다. 그런데 대사는 비로봉과 천지봉에 배를 건너 매놓고 배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이었다.

이후 대사는 부적을 한 장 그려 이것을 연못에 집어넣자 연못의 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물이 끓자 이를 견디지 못한 용들은 연못을 뛰쳐나와 앞산을 여덟 조각으로 갈라놓고 동해로 달아났다. 그 중 한 마리의 용이 눈이 멀어서 달아나지 못하고 근처의 작은 연못에 머물렀다고 한다.

의상대사는 이곳에 절을 창건한 뒤 이러한 연유를 기념하기 위해서 절 이름을 구룡사(九龍寺)라고 하였다고 한다. 현재 의상대사가 구룡사를 창건할 당시의 모습은 알 수 없지만 사찰에 전하는 설화에 의해 그 모습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이후 도선국사, 무학대사, 서산대사, 사명대사 등이 구룡사에서 수행하셨다고 하나 역시 기록으로 전하는 바



는 없다.

현재 구룡사는 한자로 ‘九龍寺’가 아니라 ‘龜龍寺’로 쓴다. 여기에는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조선 중기 이후부터 사세가 기울어지자 어떤 노인이 나타나 이르기 “절 입구의 거북바위 때문에 절의 기가 쇠약해졌으니 그 혈을 끊으라.”라고 하였다. 이에 거북바위 등에 구멍을 뚫어 혈을 끊었지만 사세가 변창하기는커녕 계속 쇠퇴하기만 했다. 할 수 없어 거북바위의 혈을 다시 잇는다는 뜻에서 절 이름을 구룡사(龜龍寺)로 불렀다고 한다.

구룡사는 오랜 역사와 더불어 많은 문화재를 갖고 있다. 대웅전은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24호로 지정되었으며 대웅전 전면의 보광전은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45호로 지정되



었다. 그리고 구룡사 삼장탱화 및 복장유물은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36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대웅전은 조선 초기에 개축된 건물로서, 여러 차례 중수하였다. 내부의 단집은 당시의 조각술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못 하나 쓰지 않고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비록 낡았지만 쉽게 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보광루는 정면 5칸, 측면 2칸의 이층 누각이며, 내부 바닥에는 짚으로 만든 명석이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것이라고 전한다.

조선 후기 대표적 지리서인 「여지도서」 강원도 원주 사찰조에는 “이미 팔십오간의 건물에 건립되어 있었으며 사찰 앞에는 용연

이라는 우물이 있는데 가뭄이 들었을 때 이곳에 기도하면 항상 응험이 있다”는 기록이 있다.

구룡사 경내에 있는 승려들의 묘탑을 모아 놓은 곳이 있다. 이곳은 비교적 넓은 곳에 말끔한 조경을 하여 환경도 좋고 보존 또한 양호한 편이다. 원통문(圓通門)을 들어서면 오른쪽 쪽으로 넓은 대지가 있는데 이곳에 9기의 석조부도가 안치되어 있다. 모두 조선 후기의 것으로 보이며, 석종형(石鐘形)과 석비형(石碑形)의 부도이다.

현재 구룡사 입구에는 조선시대에 세운 황장금표가 있다. 강원도 지정기념물 제30호인 황장금표는 치악산 일대의 송림에 대한 무단벌채를 금하는 방으로, 전국에서 유일하



- ① 사천왕문
- ② 원통문
- ③ 구룡폭포

게 남아 있는 표지로서 역사적 가치가 높다. 황장목이란 나무의 수심 부분에 색이 누렇게 몸이 단단한 질이 좋은 소나무를 말한다. 황장목은 주로 왕실에서 신관을 만드는데 쓰였다고 한다.

특히 구룡사 계곡은 계곡 가득히 넘쳐흐르는 시원한 물줄기가 인상적이다. 수백년생 소나무와 활엽수가 뽀뽀하게 들어찬 계곡길은 원시림과 같은 신비스러움을 자아낸다. 구룡교에서 절입구까지 어느 곳에서나 잠시 쉬어가도 좋다.

구룡사를 지나 구룡소를 거쳐 상류로 올라가면 선녀탕과 세림폭포까지 계속되는 절경들이 삶과 터위에 지친 나그네들을 반갑게 맞이해 준다.



구룡사 가는 길

승용차

중앙고속도로에서 영동고속도로로 접어들어 새말나들목에서 빠져나와 학곡리 삼거리로 거치면 구룡사가 나온다.

부처님과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는 날, 우란분절(盂蘭盆節)

음력 7월 15일(양력 8월 21일)은 우란분절이자 백중이다. 백중(百中)은 음력 7월 보름에 드는 속절(俗節)이며, 백중(百衆), 백종(百種), 망혼일(亡魂日), 중원(中元)이라 한다. 백중은 이 무렵에 여러 가지 과실과 채소가 많이 나와 ‘백가지 곡식의 씨앗’을 갖추어 놓았다고 하여 유래된 말이다.

중원은 도가에서 말하는 삼원(三元)의 하나로서 이 날에 천상(天上)의 선관(仙官)이 인간의 선악을 살핀다고 하는데서 연유하였다. 또한 망혼일이라 한 까닭은 망친(亡親)의 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술·음식·과일을 차려 놓고 천신(薦新)을 드린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특히 불교에서는 이날을 우란분절(盂蘭盆節)이라고 한다. 우란분절은 부처님의 십대 제자인 목련존자가 어머니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우란분회(盂蘭盆會)를 열어 오미백과를 공양했다는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이날은 또 4월 15일부터 시작된 하안거를 해제하는 날이다. 석 달의 수행기간 동안 자

신의 허물을 참회하는 자자일(自恣日)로 의심이 있으면 스승에 물어 깨달음을 얻고 깨닫는 바가 있으면 대중에게 알리는 날이기 때문에 백중(百衆)이라고 한다.

목련존자의 효성에서 비롯된 불교 명절

목련존자의 효성에서 비롯된 우란분절은 각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백가지 과일과 음식을 장만해 재(齋)를 올리고 사찰에서는 대중 스님들을 공양하는 날로 불교의 5대 명절 중 하나이다.

이런 이유로 우란분절에는 비록 진리를 깨닫기 위해 부모와 인연을 끊고 출가한 승려이지만 부모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으며,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스로 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

백중의 유래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불가에서 유래된 것으로 조선 후기에 간행된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불가의 중들이 재를 올리고 불공을 드리

는 큰 명절로 여긴다. 『형초세시기(荇楚歲時記)』에 이르기를 ‘중원일(中元日)은 승니, 도사, 속인들이 모두 분(盆)을 만들어 이것을 절에 바친다’고 했다. 또 『우란분경(盂蘭盆經)』에 목련비구(木蓮比丘)가 오미백과(五味百果)를 갖추어 분 안에 넣어 갖고十方大德(十方大德)에 공양한다고 하였다. 지금 말한 백중일이 백과를 가리키는 것이다. 고려 때는 부처를 숭상하고 이날이 오면 항상 우란분회를 베풀었다. 오늘날 불당에서 재를 올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기록에 의하면 백중은 불가에서 유래된 것으로, 고려시대에는 우란분회를 열어 여러 가지 음식을 장만하여 부처님께 공양하고, 조상의 영전에 바쳤다. 조선시대 때에는 억불숭유정책으로 승려들만의 불교의식이 되고 말았다.

사당에 음식 올리고 농가에선 백중놀이

백중에는 여러 풍속이 전해 온다. 각 가정에서는 익은 과일을 따서 사당에 천신을 올렸으며, 궁중에서는 종묘에 이른 벼를 베어 올리기도 하였다. 농가에서는 백중날 머슴들과 일꾼들에게 돈과 휴가를 주어 즐겁게 놀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날이 되면 머슴들과 일꾼들은 특별히 장만한 아침상과 새옷 및 돈을 받는데 이것을 ‘백중돈 탄다’라고 하였다. 백중돈을 탄 이들은 장터에 나가 물건을 사거나 놀이를 즐기기도 한다. 이때 서는 장을 특별히

‘백중장’이라 하여 풍장이 올리고 씨름 등을 비롯한 갖가지 흥미 있는 오락과 구경거리가 있어서, 농사에 시달렸던 머슴이나 일꾼들은 마냥 즐길 수 있는 날이다. 지역에 따라 이날 농신제(農神祭)와 더불어 집단놀이가 행해지는데 이를 ‘백중놀이’라고 한다. 이 놀이는 농촌에서 힘겨운 새벌논매기를 끝내고 여흥으로 여러 가지 놀이판을 벌여 온 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일종의 마을 잔치이다.

이날은 그해에 농사가 가장 잘 된 집의 머슴을 뽑아 소에 태워 마을을 돌며 하루를 즐기는데, 이를 ‘호미씻이’라 한다. 호미씻이는 지방에 따라서 초연(草宴), 풋굿, 머슴날, 장원례(壯元禮)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마을 사람들은 장원한 집의 머슴 얼굴에 검정칠을 하고 도롱이를 입히고 머리에 샷갓을 씌워 우습게 꾸며 지게나 사다리에 태우거나 아니면 황소 등에 태워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 그 집주인은 이들에게 술과 안주를 대접하니, 이날을 머슴날이라고 하기도 한다.

특히 백중에는 밀전병과 밀개떡을 해먹기도 했다. 여름철에는 발작물인 밀과 보리, 수수나 감자 등을 수확한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밀을 뿔아 밀가루를 만들어 밀전병과 밀개떡을 해 먹으며, 또 수수나 감자로 떡을 만들어 먹으며 부침개를 해 먹기도 한다. 이때 호박이 제철이므로 호박부침을 별미로 만들어 먹는다.

전강선사 오도송

昨夜月滿樓(작야월만루)
어젯밤 달빛은 누각에 가득 찼는데

窓外蘆花秋(창외로화추)
창밖에는 갈대꽃 가을이로다.

佛祖喪神命(불조상신명)
부처와 조사도 신명을 잃었는데

流水過橋來(유수과교래)
흐르는 물은 다리를 지나는구나.



전강(田岡) 영신(永信) 스님은 1898년 전남 곡성군 입면에서 가난한 농군의 아들로 태어났다. 선사가 일곱 살 되던 해 어머니는 그와 젖먹이 여동생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12세에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 선사는 유랑길에 나서서 온갖 꺾은 일을 하며 떠돌다 스님 한 분을 만나면서 불문에 들어서게 된다.

스님은 1918년 해인사 강원에서 대교과를 수료하고 참선에 매진, 예산 보덕사, 정혜사 등을 거치며 불철주야 정진을 계속하던 중, 한밤 중에 고향 곡성 태안사 계곡의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물소리에 크게 깨달음을 얻고 1923년 금강산 지장암의 한암스님을 찾아가 인가를 받고 이어 용성, 혜월, 보월스님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이어 전강스님은 만공스님을 찾아갔다가 더욱 큰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오도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후 전강스님은 불과 33살의 나이에 통도사 보광서원의 조실로 추대되는가 하면 제자들을 기르기 시작하여 현재 인천 용화선원에 주석하고 계신 송담스님, 법왕사 회주이신 원공당 정무스님을 배출했다.

1975년 1월 13일, 스님은 “무엇이 생사의 고통이고? 할. 뒤집어도 구구는 필십일이로다.”라는 법문을 하고 그 자리에서 앉은 채 열반하였다.

법왕사 소식

백고좌법회 전야 산사음악회 개최



김태곤



보현 스님



정무시



정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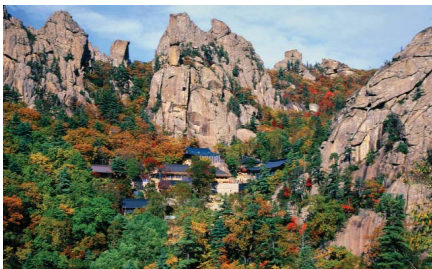
박준용



사회 신금산

법왕사에서는 제24회 백고좌법회 회향일인 7월 27일 전야(26일) 오후 7시에 백고좌법회 회향을 축하하는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음악회에는 인기 가수 김태곤과 80년대 가수로 인기를 모았던 비구니 보현스님과 뮤지컬 배우 정민경, 법왕사 우담바라합창단 지휘자 정무시 선생이 출연하오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설악산 봉정암 순례법회 봉행



법왕사에서는 오는 8월 2일(금)부터 8월 4일(일)까지 2박3일간 설악산 봉정암을 참배합니다. 봉정암은 우리나라 5대 적멸보궁 가운데 하나로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도량으로 유명한데 불심 깊은 불자들은 생전에 꼭 한번 참배하고 싶어 하는 도량입니다.

코스는 백담사 - 오세암 - 봉정암(1박) - 수렴동 계

곡 - 백담사이며 회비는 12만원입니다. 출발은 8월 2일(금) 밤 11시 30분 법왕사 주차장에서 합니다.

백고좌법회 회향 일만등 공양법회 봉행



법왕사에서는 제24회 백고좌법회 회향일인 7월 27일 전야(26일) 오후 7시에 백고좌법회 회향을 축하하는 산사음악회와 더불어 일만등 공양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100일 동안 쉼 없이 열어진 법회를 마치면서 불자들의 간절한 소망을 일만개의 연등으로 밝혀 공양하는 뜻깊은 법회에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04위 만불전 신중탱화 점안법회 봉행



법왕사에서는 지난 7월 1일 만불전에서 104위 신중탱화 점안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이날 법회에는 탕화 불사에 동참한 3백여 불자들이 참석하여 그림으로서의 불화에서 참배의 대상으로 격상되는 점안 의식을 지켜보았습니다.

신중탱화는 특히 자녀들이 학업성취에 큰 공덕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 학부모 불자들이 많은 동참을

법왕사 소식

했습니다. 약 5백명의 제자들이 동참할 수 있는데 현재 3백50여 제자가 동참하였고 1백50여 제자의 동참이 더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계사년 백중(우란분절) 맞이 49일 기도법회 봉행

법왕사에서는 계사년 백중(음력 7월 15일)을 앞두고 지난 7월 4일부터 49일간 백중맞이 기도법회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우란분절은 부처님의 제자로 효심이 남달리 컸던 목련존자께서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천도하여 생간 명절로 예부터 조상 영가 천도를 위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재일은 매주 수요일이며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원공당 정무 대중사 각령단 벽화 조성



법왕사에서는 본당에 설치한 원공당 정무 대중사 각령단 뒤편 벽화를 조성하였습니다. 이번 불사는 각령단을 여법하게 장엄하는 것으로 불상을 모신 법당의 후불탱화와도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불제자 여러분들은 1인 5만원의 동참금으로 참여하실 수 있으며 동참한 제자들은 벽화에 이름을 새겨 영원히 보존하게 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법왕불교대학 중급, 고급반 모집

법왕불교대학에서는 불교에 입문하여 더욱 깊은 교리공부를 원하는 불자들을 위해 주야간으로 중급, 고급반을 개설합니다. 중급반은 스리랑카에서 10여

년간 유학하면서 남방불교를 깊이 연구하고 최근 돌아온 영일스님께서 '빨리 불교원전' 강좌를 3개월 과정으로 하며, 고급반은 설법제일로 이름난 활안 큰스님께서 5개월 과정으로 금강경에 대해 강의합니다.

2014학년도 수능 100일 기도 입재

법왕사에서는 2014학년도 대입 수능에서 고득점을 기원하는 100일 관음기도를 오는 7월 31일 입재하여 수능일인 11월 7일에 회향합니다. 올해 수험생을 둔 불자들은 영험하는 기도도량인 법왕사에서 100일 관음기도를 정성껏 올리시고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랍니다.

오는 9월 1일 제25회 백고좌법회 입재

법왕사에서는 오는 9월 1일부터 제25회 백고좌법회를 입재합니다. 7월 27일 회향한 제24회 백고좌법회에 연이어 봉행하는 이번 법회는 법왕사가 공부와 수행을 제일로 삼는 도량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법왕사를 상징하는 법회가 되었습니다. 법왕사는 지난 1991년 창건 이래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 백고좌법회를 개최하였으며 우리 지역 불자들에게 전국의 고승대덕들의 설법을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불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BBS 불교 TV 법왕사 소개영상 촬영

7월 26일, 27일 양일간 BBS 불교 TV '사찰 탐방 절로절로' 프로그램에서 법왕사를 소개하는 영상을 촬영합니다. 백고좌법회 회향에 즈음해 촬영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백고좌법회를 봉행하는 도량이며 불교복지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법왕사를 전국의 불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기

법왕사 소식

확된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불교대학 고급반 금강경 강독 성황



지난 7월 4일 개강한 법왕불교대학 고급반 '금강경 강독' 5개월 과정에 50여명의 불자들이 동참하여 한 여름 무더위도 잊은 채 불법 탐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좌의 주제인 금강경은 조계종의 소의경전으로 대승불교의 핵심 개념인 공(空) 사상을 가장 잘 드러낸 경전입니다. 또한 강의를 맡은 활안스님은 '설법제일'로 이름난 대강백으로 재미있고 깊이 있는 해설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강의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탄공스님 사찰음식 강좌 인기



사찰음식 전문가인 탄공 비구니스님의 사찰음식 강좌에 30여명의 불자들이 동참하여 건강과 수행을 돕는 사찰요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탄공스님은 전통사찰음식연구회회장으로 매스컴의 요리강좌에 많이 출연하여 사찰요리를 선보였고, KBS 인간극장에도 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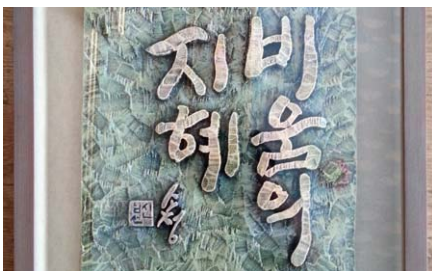
연한 바 있습니다. 강좌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시작하며 3개월 과정입니다.

전통 다도강좌 꾸준한 인기



법왕사 문화교실의 하나로 진행중인 전통다도강좌에 매번 10여명 이상의 불자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전통다도 전문가인 청화다례원 원장 김정규 선생님이 지도하는 다도강좌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합니다.

서각강좌도 인기리에 진행중



서각 전문가 신임선 선생님이 지도하는 서각강좌가 20여명의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신임선 선생님은 대구광역시 서예대전 초대작가로 죽농서단 이사이며 남부도 서관을 비롯해 여러 곳에서 서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예와 조각, 취미와 수행을 겸해서 활동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오니 불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법왕사 게시판

2013 AUGUST Vol. 231호

100일 기도 새로 올리신 분

신두조 10만원

수능기도 올리신 분

박재현 10만원 상민철 10만원

생신 축하합니다

한옥련 한박병조 이동학(6. 6)
김영훈(7. 6) 박동근(5. 27)
최운재: 팔시루떡 3만원 김기곤(5. 18)

새롭게 원불 봉안하신 분

이선미(보현보살) 이지형(관세음보살)

지장탱화 올리신 분

김분용

요양원 도움 주신 분

박종성 2만원 박경후 2만원

돼지 저금통 회향하신 분

임영근 오재대(오대자원) 3개

정무스님 각령전 보시하신 분

정광춘 5만원

백중 초재 공양하신 분

과일공양 서미경 5만원 박해일 2만원
권혁만 바나나 1box

떡공양

류윤만 2되 김성도 콩시루떡
이채원 5만원 정국영, 정시영 5만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신 공양물 감사드립니다.

주지스님 승복 보시하신 분

구실상화

양초 보시하신 분

권수영 5만원

대중공양하신 분

최태희: 멸치 1box
동양식품: 당면(5kg) 1box, 돈가스(5kg) 2box,
동그랑땡(5kg) 1box
정영미: 떡 직접
정돈: 공양미 5만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신 공양물 감사드립니다.

초하루 기도 도움 주신 분

과일공양 이효정 2만원 서민관 직접
떡공양 안준영 15만원 정영미 시루떡 2되
유과공양 박해일(까치제과) 1box

공양미 김옥희 5만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신 공양물 감사드립니다.

사보 도움 주신 분

최옥남 600부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법왕사보는 거듭 새롭게 꾸며질 것입니다.

법사비 도움 주신 분

정영미 50만원

백중 입재 도움 주신 분

대중공양 고연숙 10만원

법왕사 게시판

2013 AUGUST Vol. 231호

◎ 떡공양

심규암 인절미 2되 신민호 떡 3되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신 공양물 감사드립니다.

죽원 올리신 분

백복순, 이태희, 이형욱 6만원
서형필 1만5천원

신중탱화 점안식 도움 주신 분

오진환, 김정은 대중공양 500만원
신장희 일동, 최남구 시루떡 1말, 과일 일체
구실상화 오색식 3타래
백법성행 2타래
강동환 팔 1되, 1만원
신격기 광목 5만원
유성중, 유진웅 팔시루떡 5되
김상한 떡공양 5만원
김타관 떡공양 5만원
정영미 과일공양 5만원

백고좌법회 공양미 도움 주신 분

최금부 5만원

지장재일 떡공양하신 분

김정석

산신인등기도 올리신 분

백수경 백승훈

새롭게 인등 켜신 분

김종규 김영준 김형준

하나의 인등이 세상을 밝힙니다. 정성이 담긴 등을 밝혀 지혜, 복덕, 수명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신중탱화 모신 분

김정호 윤정민 우정현 이소민 백수경
한은숙 이재원 우연정 금동인 이창식

김재운	안선희	황경희	권정희	이나영
김희준	김경란	장동탁	금대운	양경숙
김희재	김정석	권기욱	정근순	김진영
정영철	나승용	강봉호	권동근	박석현
허예정	박찬용	이무영	박영민	박정락
김정미	김손영	구숙자	권민성	박세훈
김정옥	박세민	이유청	권나경	박준범
서길수	이동택	이정희	장건용	황미선
이보민	김경화	이유홍	장경혜	윤지옥
최성욱	이정원	조연정	이춘자	권무안
신재기	이호섭	이유모	김영홍	이덕희
신성호	조연행	정두경	김수원	신원혜
신세호	이선희	이민아	강필식	이선희
이상조	조성민	이민정	이계순	우동진
이상석	조경민	이진아	최강섭	강희정
이영우	권보형	이재훈	백창희	채용자
이정순	권재현	이민주	조희선	조현갑
이효원	허태욱	이재원	백승훈	채용자

법왕사 계좌번호

◎ 대구은행 047-05-003698-6 법왕사

◎ 농 협 702010-51-106490 법왕사

해오름 게시판

2013 AUGUST Vol. 231호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6월)

◎ 수입내역

고선영 1만원	김예분 1만원	박명숙 1만원
최복례 1만원	권봉자 1만원	오금옥 1만원
박대희 5천원	이남희 1만원	안상준 2만원
강소남 5천원	박원태 1만5천원	김유진 1만원
유명옥 1만원	김기덕 2만원	이임숙 2만원
현인숙 1만원	박순영 5천원	임익균 1만원
곽순복 2만원	강선옥 3만원	김진성 1만원
심준순 5천원	홍세림 1만원	한규매 5천원
정연이 5천원	이인순 5천원	김봉숙 5천원
오난옥 5천원	이병희 1만원	김순란 3만원
신구자 5천원	조영석 1만원	박학순 1만원
조용수 1만원	김정희 1만원	윤순희 1만원
김미옥 2만원	김수라 1만원	최분규 1만원
양니영 5천원	정광춘 5만원	여축동 1만원
신혜경 5천원	안명희 1만원	황미선 2만원
노수정 1만원	관계화 1만원	장우성 1만원
김기수 2만원	김주희 5천원	신임선 5천원
권혁봉 5천원	문정원 1만원	박정목 1만원
이호동 5천원	최경순 1만원	성외련 2만원
고연숙 1만원	정활수 3만원	임상덕 1만원
김임태 5천원	정시영 1만원	권보형 2만원
홍세미 1만원	고규인 1만원	이원래 3만원
사공관 1만원	이성자 5천원	채옥연 5천원
배수현 2만원	신돈식 1만원	여택동 5천원
이종희 5천원	안경순 1만원	장인숙 5천원
권오성 1만원	강태출 5천원	박태숙 5천원
박창목 5천원	이현우 1만원	이은주 3만원
문정애 2만원	류운만 1만원	노귀자 5천원
이정옥 1만원	정무시 1만원	권숙자 1만원
한영희 1만원	강영도 2만원	이정훈 1만원
심규암 5천원	김정자 5천원	김기수 2만원
구정대 2만원	김순태 1만원	김민주 1만원
홍유식 5천원	윤광숙 5천원	김정순 3만원
이강복 1만원	이은희 5천원	황정희 5천원
우포정사 1만원	한국장례문화	최학영 10만원

합계 1,295,000원

◎ 지출내역

- CMS 사용료	66,000원
- 어르신 진료비 및 약 구입	172,100원
- 기저귀 구입	504,000원

- 부식 구입	66,760원
- 문자통지수수료	1,000원
- 키폰 설치	50,000원
- 진정함 구입	60,000원
- 화이트보드 구입	140,200원
- 업무용 차량 주유대	100,000원

6월 총 사용내역 1,160,060원

잔액 138,079원 (2013년 6월말 기준)

※ 해오름요양원을 위해서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월 사보를 통해서 수입, 지출내역을 상세히 기록할 것이며 남은 금액도 어르신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 해오름요양원에서는 후원자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CMS자동이체신청을 개설했습니다. 법왕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오시면 신청서가 구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나누는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후원물품 보내신 분

남북한 어르신 보호자 : 박카스 10개
김덕순 어르신 보호자 : 야쿠르트 60개
심규암 보살님 : 망개떡 90개, 두유 2박스
효산병원(정규화 어르신) : 수박 1개
임성녀 어르신 보호자 : 수박 1개
김명희 봉사자 : 떡 3되
장석순 어르신 보호자 : 수박 1개
정금화 어르신 보호자 : 수박 2통
윤말줄 어르신 보호자 : 아이스크림 10팩
주정석 어르신 보호자 : 수박 1통, 떡 30팩
효산병원 : 요플레 24개
채분이 어르신 보호자 : 박카스 2통
서선화 어르신 보호자 : 감자 1box, 메론 1box
박말분 어르신 보호자 : 비피더스 30개
김덕순 어르신 보호자 : 요플레 30개

※ 어르신들을 위해 후원하신 물품과 후원금을 소중히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오름요양원 새가족

신규 입소 어르신 : 정금화, 채분이, 주정석 어르신

※ 어르신들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신규 입사자 : 박귀분, 권명원, 정금용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모집

해오름요양원에서는 각종 프로그램 진행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능기부에 관심 있는 자원봉사자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활동일시**
- 매주 1~2회 14~15시(시간, 요일 조절 가능)
- **활동분야**
- 미술활동, 음악활동, 종이조형, 아로마요법, 생활체육, 요가, 민요, 원예, 다도, 놀이활동 등
- **신청방법**
- T.053-766-5767 담당 사무국장 강선옥
- 방문접수 법왕사 1층 사무실(수성구 파동로 51길 96)

요양원 입소 안내

- **입소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요양 등급 1~3등급 (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어르신
- **입소시 준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건강진단서 1부

※ 어르신들을 위해 후원하신 물품과 후원금을 소중히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료**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저소득층) / 국가유공자 본인부담금 10%
- 비급여항목(식대, 간식비) 별도 부담
- **문의** 전화 053)766-5767
팩스 053)766-5095

후원안내

금품후원 대구은행 505-10-119877-1
예금주 해오름요양원
물품후원 기저귀, 의약품, 세제류, 의복, 주·부식류, 생활용품 등
CMS자동이체 후원
법왕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구좌 5,000원부터)

홍순영 선생 초청, '생활역학과 풍수' 특별강좌

법왕사에서는 불자들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풍수 및 역학 전문가 홍순영 선생을 강사로 초빙, '생활역학과 풍수' 특별강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전통적인 음택과 양기 풍수 이론뿐만 아니라 현대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인테리어 풍수, 생활풍수는 물론, 사주, 명리, 작명 등 실용적인 풍수와 역학의 이론과 적용법을 강의합니다.

강사 **홍순영** 선생



- 약력 : 대한풍수학회 회장
한국역학인종회 고문
동양문화연구원 원장
- 저서 : '나도 풍수가 될 수 있다', '명리특강 1, 2, 3'
- 논문 : '수리길흉론', '나경 사용법'

- **시 간**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 **장 소** : 법왕사 복지관 강의실
- **문 의** : 766-3747, 9088

2013년 1월 1일
음식폐기물 종량제 전면 실시

가정용 - 음식물 바이오 처리기
친환경 미생물을 이용한 발효·소멸방식

세계최초 배기호스 NO
침출수 NO
악취, 세균 NO
필터교체 NO

- 캐나다 밴쿠버 세계박람회 **최우수 상품** 선정
- 스포츠서울 선정 2011년 기술혁신부문 **브랜드대상** 수상
- 친환경 녹색기업, 환경부 **녹색인증** 대상업체
- 설치가 필요없고 사용이 편리하며, 24시간 내 대부분 분해 소멸됨
- 2개월에 한번 비료로 사용
- 월 전기료 3,000원 미만

*** 수익금 법왕사 해오름 요양원 후원 ***

상담문의
주미렌바이오 대구중구총판 장성용 010-6527-6977
총판 / 대리점 / 영업사원 모집 / 주부환영

청정 지역 청송에서
100% 순 우리 콩으로 빚은 간장·된장
재래식 전통 비법으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법왕사에서 청정지역 청송에서 재배한 순 우리 콩으로 빚은 메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법왕사 메주는 우리나라 최고의 청정지역인 청송에서 재배하고 가공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발효한 최고의 친환경 식품입니다.

간장 2만원
된장 3만원

구입문의 053-766-3747, 9088
대구은행 047-05-003698-6 법왕사
농협 702010-51-106490 법왕사

법왕불교대학 초급, 중급, 고급반 모집

법왕불교대학에서는 초급 주야간반을 비롯하여 불교에 입문하여 더욱 깊은 교리공부를 원하는 불자들을 위해 주야간으로 중급, 고급반, 경전반을 개설합니다.

중급반은 스리랑카에서 10여년간 유학하면서 남방불교를 깊이 연구하고 최근 돌아온 영일스님께서 '빨리 불교원전' 강좌를 3개월 과정으로 하며, 고급반은 설법제일로 이름난 활안 큰스님께서 5개월 과정으로 금강경을 강의합니다.

 **초급반** 실상스님(법왕사 주지)
(주야간) 기초교리(7월초 개강)

 **중급반** 영일스님(스리랑카 유학)
(3개월) 빨리불교 원전(8월말 개강)

 **고급반** 활안스님(설법제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
(5개월) 금강경(7월 4일 개강)

- 법왕사 문화 강좌 개설 -

 **생활역학과 풍수지리반**
- 강사 : 홍순영 선생님
- 약력 : 한국역학인총회 고문
대한풍수학회 회장
동양문화연구원 원장

 **다도**
- 강사 : 김정규 선생님
- 약력 : 청화다례원 원장
- 시간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서각**
- 강사 : 신임선 선생님
- 약력 : 대구광역시 서예대전 초대작가
죽농서단 이사
남부도서관, 북부도서관,
- 시간 : 매주 화, 목
- 회비 : 3개월 20만원(재료비 별도)

 **합창단**
- 강사 : 정무시 선생님
- 약력 : 영남대학교음악대학 동대학원 졸업
대구시립합창단원
- 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회비 : 없음

 **사찰음식**
- 강사 : 탄공스님 선생님
- 약력 : 전통사찰음식 연구회 회장 / KBS 한식 탐험대 출연
MBC 찾아라 맛있는 TV / KBS 인간극장 5부작 출연



신행단체 모임안내

신 장 회 매월(음) 10일 오전 10시

산신기도회 매월(음) 16일 오후 4시

관 음 회 매월(음) 24일 오전 10시

선우회(참선반) 매일 오후 7시~9시 주말 자유정진

인 등 회 매월(음) 15일 오전 10시

지 장 회 매월(음) 18일 오전 10시

합 창 단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사 물 놀 이 매주 월, 목요일 오후 2시

제24회 백고좌법회 회향 전야 산사음악회

법왕사에서는 제24회 백고좌법회 회향일인 7월 27일 전야(26일) 오후 7시에 백고좌법회 회향을 축하하는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일 시 | 불기 2557년(2013년) 7월 26일(금) 오후 7시

장 소 | 법왕사 종합복지관 3층 만불전

출 연 | 보현 비구니 스님(대찬인생 출연), 정민경(넉센스2 출연중)
정무시(우담바라합창단 지휘자), 박준용, 김태곤(불자가수)

사 회 | 신금산(전 푸른방송 아나운서)

* 출연진 소개 *

김태곤 · 초대 불자가수



- MBC 10대 가수 신인상 수상
-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보건학 박사 학위 취득

보현스님



- 80년대 인기가수
- 대찬인생 출연

정무시 · 우담바라합창단 지휘자



- 사랑합니다 한광훈 곡
- 경복궁 타령 경기민요

정민경 · 뮤지컬 배우



- 넉센스2 출연중

박준용



신금산 · 전 푸른방송 아나운서

